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제위와 제운이 그대로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의 학원, 우리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주제혁명위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학원의 원아들이 만경대의 아들답게 역세게 자리나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을 저저마다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뉘어 지기 아쉬워 자꾸자꾸 따라서는 원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칭박으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뜻깊은 식수절에 학원을 찾아주시고 볼보다

뜨거운 조국애를 심어주시며 헌없는 사랑과 은성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뉘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깨끗이 이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정보도반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을 꽃피워 조국 강산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빛내이자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단체들의 쉼기모임 진행,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나무심기에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켜 주신 뜻깊은 날인 식수절을 맞으며 전국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였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데 대한 당의 애국의 호소를 심정으로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더 밝힌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러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단체들의 쉼기모임이 2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핵

심원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에서** 농업근로자들과 농민학생들을 산림복구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쉼기모임에서는 리명길 농업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사동구역농구맹목위원장 김순갑, 남변군 오봉리농구맹목위원장 리영희, 봉산군 지리현농구맹목작업반장 정원준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35(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르시며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켜주시고 조국산천을 수리화, 원림화하기 위한 현대한 실계도를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군혁명병도의 길에서 조국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후대들에게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을 물려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새겨안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바치시는 불멸의 로고와 애국헌신은 이 땅우에 뜨겁게 수놓아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민학생들이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치거나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 주변산천을 수리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열나뭇나무심기사업에 일관성있게 내밀며 살림질과 마을주변에 더 많은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농촌을 푸른 숲이 되고야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쉼기모임에서는 주영길 직공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박현철, 평양시지방법원장 김경수,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지대인 장원복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식수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꾸러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의뢰하신 것인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념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자유이 뜨겁게 어려있는 조국강산이 푸른 숲이 되는 사회주의농촌으로 나아가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 부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대지를 더 푸르게 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산림복구전투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이라는 것을 심장에 쏘아박고 나무심기와 판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며 산림자원을 철저히 보호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급 직공조직들은 산림복구전투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애국적운동과 모범산림공정호정위원들에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간가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공전에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학생들 산림복구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쉼기모임에서는 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메이평공작 로동자 김진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최진혁, 모란봉구역 청소년학교 학생 정수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산림조성사업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충정다해 받들어나가는 검사관찰의 제일기수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경대, 삼지연지구를 비롯하여 철새위원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혁명사적지, 혁명적지들이 수놓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더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팀, 소년단팀조성을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나무심기에서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과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애국의 한마음으로 심은 나무들을 대한 비배관리를 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꾼들이 청소년들에게 대한 교양사업을 함신하게 벌려 그들모두를 이 땅의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도 애써 가꾸어 나가는 참다운 김정은동지주의자로 온몸을 바치시게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민들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 산림복구전투에서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발휘하기 위한 녀명일꾼들과 녀명원들의 쉼기모임에서는 장춘실 녀명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녀명중앙위원회의 부장 박금주, 순안구역녀명위원회 위장순, 봉성구역 봉추1동 녀명팀 강현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식수절에 맞이하는 전체 녀명일꾼들과 녀명원들은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부흥도원으로 가꾸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땅의 호소파라 나라의 모든 산천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명일꾼들과 녀명원들이 김정은동지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경제적리용 가치가 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성껏 심고 잘 가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무모보장이자 산림조성이란것을 명심하고 녀명원들더 활동과 좋은일이기운을 활발히 벌려 현대적인 양묘장건설과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녀명조직들에서 녀명원들을 산림복구전투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경지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며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헌신 산림복구전투에서 조선녀성의 본분을 다해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위업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나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이 끝난 다음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각계층 근로자들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오신데

모임들이 끝난 다음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각계층 근로자들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오신데

【조선중앙통신】